## 행복한 책읽기

### 장 튈레의 '자살가게' 〈열림원〉

자살은 유전자의 전파를 스스로 막는 행위이다. 기독교는 자살하는 사람을 대죄로 여기지만 신화는 간혹 자살을 권고한다. 실레누스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일찍 죽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실, 이 뜻은 인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신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담긴 메시지이다. 생명을 끊는 것은 생명의 부정이 아니라 생명의 더 큰 긍정 때문이라고 마르쿠제도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조건에 놓이면 자살을 시도한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자살 충동' 개념에서 죽음은 모든 긴장이 해소되는 상태, 즉 '긴장의 제로 지점'이라고 했다. 동반 자살의 심리적 배경에는 허무감, '나'만 못한다는 수치심, 에고(Ego)의 손상, 열패감 같은 것이 작용한다.

누구나 경쟁 제일주의 사회에서 한번 즈음 '자살충동'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 충동을 느꼈을 때 '되돌아설' 능력에 파탄이 생긴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즉, 이 파탄이 내부로 향하면 자기 파괴로 이어지고, 외부로 향하면 사회 파괴(살인 등)로 치닫는다.

파작의 '거대한 고독'에서 언급되는 파베세는 1950년 8월 26일 토요일, 독약이 묻은 열여섯 알의 수면제를 먹었다. 그는 "자살은 수줍은 타살이다. 가학성 대신 피학성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자살 가게'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가게다. 끊어지지 않는 밧줄부터 녹슨 면도칼, 세푸쿠용 칼과 기모노, 투신할 때 사용하는 투신용 블록, 죽음의 키스, 죽음의 봉봉사탕이 있는가 하면 독이 든 사과나 두꺼비, 거미도 있다. 대대로 물려받은 이 가게를 주인인 튀바슈와 뤼크레스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운영한다.

장남과 장녀는 자살가게 분위기에 어울릴 만큼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하다. 이들의 이름도 의미심장하다. 장남 뱅상(Vincent)은 반 고흐의 이름이고 장녀 마릴린은 먼로의 프랑스식 이름이다. 그럼 막내 알랑(Alan)은 누구의 이름일까. 초기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인 앨런 튜링이다.

### '자, 살자!' 주문을 외워본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에니그마 시스템을 풀어내서 최종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1954년 6월 7일 사과 하나를 청산칼리 용액에 적신 다음 작은 원탁 위에 올려놓고 정물화한 장을 그렸다. 그런 다음 사과를 먹었다. 사람들은 애플사(社)의 로고가 한입 베어 먹은 사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막내 알랑은 이름과 달리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학교에서 자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쉼표 하나만 찍어 응수한다. '자, 살자!'라고.

번역자 성귀수는 '옮긴이의 글'에서 "웬만하면 자살하지 말자!"라는 타이틀을 내건다. 방송매체에서 연이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경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견디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 살자!'라고 나도 주문처럼 읊조린다.

'자살가게'는 역설적으로 삶을 더 생각하게 한다.

**차노휘**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신임 총감독 이영혜씨

## "디자인 본령은 상업…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

### 광주만의 색채·지역성·비엔날레와 차별화 숙제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이영혜 (주)디자인하우스 대표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활 속의 디자인'을 강조했다. /김전수기자 jeans@

"디자인의 '본령'은 상업이다"

내년 9월 열리는 제 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6일~10월27일) 총감독으로 선임된 이영혜(59·㈜디자인 하우스 대표)씨의 첫 마디다. 디자인의 담론이나 공공성·미학적 가치에 초점이 모아졌던 네 차례의 디자인비엔날레와 확연한 차별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업관이나 디자이너들의 전시 공간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식경제부와 광주시도 내년 디자인비엔날레부터는 국내 디자인 산업, 광주 디자인 산업과의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모색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 대표는 이런 과정에서 적격자로 떠올라 총감독에 최종 선임됐다.

그는 "생활 속의 디자인 문화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며 "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와 달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디자인비엔날레를 총괄하게 됐는데, 소감은 어떠한가.**

▲걱정도 되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긴다. 지난 1977년에 '월간'디자인의 편집부 기자로 들어온 뒤 36년째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지역에서 광주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디자인비엔날레를 10년째 하고 있다는 점은 참 대단하다. '광주발 디자인비엔날레의 메시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4회까지 치러오면서 차별화된 주제로 진행해왔다. 처음엔 광주지역의 경우 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예 비엔날레'쪽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봤다. 스타트가 어려운 법인데, 이렇게 잘 끌고 왔다. 네 차례 다 잘됐다.

하지만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 같다. 노력을 기울여 광주 지역에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향후 디자인비엔날레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솔직히 지난 토요일(24일) 선정 소식을 들었다. 오늘도 이사회에서 향후 계획과 구상을 말하지 못했다. 생각은 참 많다.

생활 속 디자인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디자인은 건축 분야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일 수 있는데, 생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갈 계획이다. '리빙 디자인'이라고 해야 하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생각이다.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

**-(디자인비엔날레가) 산업화를 모색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칫 상업성을 띠는 행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 않겠나.**

▲상업화가 이뤄져야 산업이 되는 것 아닌가. 디자인의 본령은 상업이다. 지역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한 물건을 전시할 경우 전시를 했기 때문에 작품으로 불린다. 전시라는 형태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품으로 불리지 않겠나. 광주비엔날레와도 달라야 한다고 본다. 두 비엔날레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숙제다. 특히 광주에서 열리는 큰 행사인 만큼 디자인비엔날레에 광주만의 색채를, 지역성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가 숙제가 될 것이다. 나 스스로에게도 기대하고 싶다.

한편,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입장료를 사전예매의 경우 1만원(성인 기준)에서 1만1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의 현장 판매 요금(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을 각각 4000원, 6000원으로 올리는 안과 121억 19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생활 속 디자인 문화 확산에 주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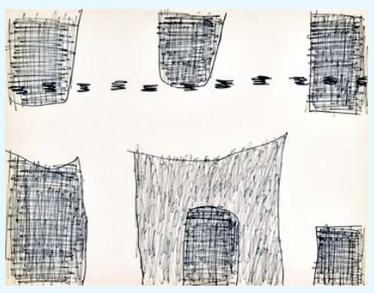
## 드로잉, 작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다

### 31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드로잉은 작가의 구상과 기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색을 입혀 그림을 완성하기 전 단계인 탓에 작가의 내적 세계와 다양한 실험정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소통의 창구나 다름 없다. 이 때문에 미술계에서 드로잉을 '완성작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소홀히 취급하던 시각도 사라진 지 오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31일부터 5월 27일까지 여는'드로잉 기행'전은 작가의 내면과 창작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드로잉 작품 84점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과정과 숨은 의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김환기 작 '무제'

전시에서는 오지호·천경자·김환기·이응노·강용운·배동신·강연균·김형수·손아유·이우환·곽인식·문승근 등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 미술가들의 드로잉을 보여준다.

강연균의 '소녀', 김환기의 '무제'등은 완성 작품에서 접할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천경자만의 화려함을 엿볼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색채화도 드로잉의 범주에 포함됐다. 문의 062-613-714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송순섭 명창 '박봉술제 흥보가' 완창 무대

### 31일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

판소리 한바탕을 모두 들려주는 완창 무대는 소리꾼들이 언제나 꿈꾸는 무대다. 몇 시간 계속되는 고독한 무대에서 청중의 추임새가 큰 힘이 된다.

올해로 희수(喜壽·77세)를 맞은 송순섭 명창이 다시 한번 완창 무대에 나선다. 지난해 국립극장이 기획한 '완창 판소리' 시리즈 무대에서 '박봉술제 수궁가'를 선보였던 송명창은 2012년 시즌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오는 31일 오후 3시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송명창은 박봉술제 '흥보가'를 들려준다.

호방한 기운의 동편제 소리 맥을 잇고 있는 송명창은 이번 무대에서 '제비 노정기', '흥부 박타는 장면' 등 '흥보가'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준다. 고수는 박근영·정향자씨.

송순섭

송만갑-박봉래-박봉술로 이어져 오는 동편제의 맥을 잇고 있는 송명창은 지난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지정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원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며 화관문화훈장, 신재효 동리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38,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농성역 광송간도로 한일파이프 새우리병원 북교당 한약방